

전 세계 교회들, 부활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 걷는다

전통 전례부터 현대적 실천까지...
부활절까지 공동체 참여와 신앙 회복 강조

2026년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다양한 예배와 묵상,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 기간에 포함된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이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예수의 수난과 은혜를 되새기는 한 주간으로, 성도들은 각 요일별 사건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낸다.
예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숙청,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겐세마네 기도, 체포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이 전개된 바 있다.
2026년 부활절(4월 5일)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교회에서는 특별새벽기도회와 영성 집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주제로 매일 새벽 집회를 열고 있으며, 부산경남 지역 교회들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다. 일부 교회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할 예정이다.
일상 속 절제와 묵상을 실천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월드비전 등과 연계한 '거룩한 멈춤' 캠페인을 통해 미디어 금식과 한 끼 금식 등을 실천하고, 절약한 비용을 이웃에게 나누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요일별 성경 묵상 자료를 공유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

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앙을 되돌아보도록 돕고 있다.
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명의 부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202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70여 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4월 5일 오후 4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예배는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과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기도회에서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평화의 메시지이다.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평화라는 주제로 하나 되고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교회가 화해와 회복의 계기를 맞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총 총회장 김성석 목사는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절연합예배가 한국교회가 하나 됨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연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계기로 내부적 성찰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이단 문제와 정치적 갈등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외 교회들도 전통 전례와 지역·시대적 특성을 결합한 다양한 예배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예배를 넘어 성경 속 사건을 재현하고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려주일에는 교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기도 했다. 사용된 가지는 보관했다가 이듬해 제의 수요일 예배에 활용되기도 한다.
세족 목요일에는 예수와 제자들의 최후 만찬을 기념하면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교회는 예배 후 제단 장식을 제거하고 불을 끄는 '제단 바리' 의식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고독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
특히 4월 3일은 성금요일(Good Friday)이다. 이날은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날로 알려져 있다.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 묵상과 함께 실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거리 행사가 열리며, 종과 약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한다.
더불어 성토요일 밤에는 어둠 속에서 새 불을 밝히는 '빛의 예식'으로 부활 전야제를 시작하며, 세례와 입교식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 전통도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와 함께 해돋이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선라이즈 서비스'가 널리 행해진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부활절 음식 바구니 축복, 독일의 모닥불 행사 등이 이어진다. 스페인에서는 '세마나 산타' 기간 동안 대규모 행렬이 도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생활 속 신앙 실천도 두드러진다. 일부

교인들은 성금요일에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는 '미디어 단식'을 실천하며, 영국 등에서는 십자가 모양의 '핫 크로스 번'을 나누며 예수의 희생을 기념한다.
교단별 특징도 뚜렷하다. 개신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연합 '크로스 워크' 행진이 열리고, 영국 교회들은 노숙인 대상 나눔 활동을 펼친다. 독일 루터교회는 수난곡 연주 등 음악 중심 예배와 침묵 묵상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긴다.
동방 정교회는 보다 전통적인 의식을 유지한다. 그리스에서는 성금요일에 맞춰 '에피타피오스' 행렬이 진행되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장기간 금식과 밤샘 기도가 이어진다. 2026년 정교회 부활절은 4월 12일로, 서방 교회보다 일주일 늦게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온라인 묵상 콘텐츠 제공, 탄소 절제 실천 등 현대적 방식의 고난주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社告 지령 3천호를 맞으며... 십자가의 길, 한국교회의 새 길을 향해

기독일보가 오늘로 지령 3천호를 맞았습니다. 2011년 7월 창립 이후, 온라인과 PDF 발행을 중심으로 출판한 본지는 2020년 3월 12일 첫 종이신문을 인쇄한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일간 24면 발행을 이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 마침내 3천호에 이르렀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에 지령 3천호를 맞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깊은 사명과 책임을 느낍니다. 십자가

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이며,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 기독일보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성경적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힘써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구석구석을 찾아 취재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매일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3천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 기독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파수꾼'으로서 더욱 깨어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장에 기록된 파수꾼의 사명을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시며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소망이며 성도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독일보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자리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못된 시대의 흐름과 여론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경고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이 질어질수록 빛이 더욱 분명해지듯, 혼란한 시대일수록 진리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으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의 위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급변하

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일보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한국교회가 다시 서도록 돕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전하겠습니다.
성금요일에 맞은 날 3천호 인쇄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

를 가까이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 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기독일보 역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길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한국교회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며, 진리와 정의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지령 3천호를 디딤돌 삼아,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기독일보 임직원 일동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소망

“기독일보 지령 3천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만한 교회
ChungManHan Church

담임목사 **임 다 율** / Tel. 031) 943-0708

[문정성전]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5

[일산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9

[목동성전]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7단지

담임목사 **임 다 율**